



보도시점

2025. 12. 14.(일) 11:00
12. 15.(월) 조간

배포 2025. 12. 12.(금) 16:00

K-젖소 유전자원 몽골에 진출한다!

- 농식품부-몽골 수의청 간 12월 10일 수출 검역조건 합의 서명
- 검역 합의에 이어 수출 및 기술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등 낙농산업 위상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의 젖소 유전자원(정액, 수정란) 몽골 수출을 위한 농식품부-몽골 수의청 간 검역협상이 12월 10일자로 완료되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몽골 축산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KOPIA)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몽골로 수출하기 위해 그간 몽골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우리나라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마리당 하루 평균 32리터로 세계 8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젖소 유전자원은 네팔, 키르기스스탄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현지 우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 개량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몽골은 한국의 우수 젖소 유전자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몽골 수의청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등 소속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12월 10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 서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 및 기술교류에 관한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첫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역 합의 서명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 - (몽골) 수의청 수의검사보증과장

** 업무협약 : (한국) 농촌진흥청, 젖소개량사업소, (주)제네틱스 - (몽골) 가축유전자원센터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 합의에 대해 몽골 정부에서 한국의 검역체계와 젖소 개량 기술 등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한국 낙농산업의 높은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동물약품 등 낙농 연관 산업의 몽골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산 젓소 유전자원 수출 확대, 몽골 현지 실증을 통한 개량 효과 분석, 기술교육 확대 등 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용호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 합의는 ‘K-낙농’의 우수함을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에 제약이 되는 검역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산 젓소 유전자원을 몽골로 수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농산업체 신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수현 (044-201-2071)
		담당자	사무관	박제민 (044-201-2072)
		책임자	과 장	이연섭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신소연 (044-201-234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54-912-0416)
		담당자	사무관	정혜선 (054-912-0420)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수출농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유은하 (063-238-1160)
		담당자	연구사	유지현 (063-238-1165)
		책임자	과 장	안옥현 (063-238-0670)
		담당자	연구사	위하연 (063-238-0675)

